

“애들아, 봄나들이 가자!” ‘꽃 사태’ 맞은 섬진강 오백삼십리

섬진강은 남한에서 네 번째로 길고, 사람의 손때가 덜 묻은 강이다. 섬진강은 총 길이 212.3km로 60여 개의 셋강과 물줄기를 안고 전라도와 경상도를 거쳐 남해로 흘러든다. 섬진강 일대 구례와 곡성, 하동과 광양은 봄이면 꽃비에 젖는다. 노란 산수유, 하얀 매화와 빨간 홍매화, 연분홍 벚꽃이 차례로 꽃망울을 터뜨리며 꽃 대궐을 이룬다.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물줄기와 하얀 모래톱, 새싹을 틔운 나뭇가지도 눈물 날 정도로 아름답다. 눈만 들리면 산자락과 강변을 따라 남도의 봄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글 이창호 기자 · 사진 전수영 기자





1 임실 진짜마을의 김용택 시인의 생가
2 진짜마을에서 천담마을까지의 '시인의 길'에 있는 전망대 쉼터
3 선경을 떠올리게 할 만큼 몽환적인 옥정호 물안개

"가운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퍼가도 퍼가도 전라도 싹뺏줄 같은/ 개울 물들이 끓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해 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쌀밥 같은 토끼풀 꽃,/ 숯불 같은 자운영 꽃 머리에 이어 주며/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에...(중략)... 흐르다 흐르다 목메이면/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뼈 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안고/ 지리산 뚱뚱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중략)... 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레자식들이/ 퍼 간다고 마을 강물인가를."

봄은 늘 설렘과 함께 온다. '섬진강 시인'으로 불리는 김용택 시인의 '섬진강 1'을 읽다 보면 마음은 이미 유장하게 흐르는 섬진강변에 앉아 있다. 섬진강의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이 모두 좋지만, 김용택 시인은 봄에서 시적인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장편 소설 '흔불'의 최명희 작가는 섬진강을 '구름이 몸을 이루면 바위가 되고 바위가 몸을 풀면 구름이 되는 곳'이라고 표현했고, 많은 사람은 '누이 같은 강', '봄소식을 전하는 강'이라고 말하곤 한다. 이런 섬진강은 마을 따라 굽이굽이 흐르며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풍광과 명소,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낸다.

전북 진안의 팔공산 자락 옥녀봉 아래 데미샘에서 발원한 섬진강은 임실, 순창, 남원, 곡성, 구례, 하동, 광양을 지나 광양만으로 흘러간다. 총 길이 212.3km, 오백삼십리의 물길은 진안의 마령과 임실 관촌을 지나 옥정호에 이르고, 진짜마을과 구담마을을 거쳐 순창의 장군목과 향기유원지를 지



3



난다. 순창의 오수천과 남원의 요천을 받아들인 섬진강은 곡성의 압록에서 보성강과 물길을 섞은 뒤 구례의 대나무숲을 지나 지리산과 백운산 사이로 흘러간다. 화개천을 받아들인 섬진강은 매화가 흐드러진 하동과 광양의 물길을 따라가다가 광양의 망덕포구에서 남해로 빠져나간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젓줄인 섬진강은 모래내, 모래가람, 다사강, 두치강으로 불렸는데, 고려 우왕 11년(1385)에 왜구가 하구로 침입했을 때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떼가 울부짖자 이에 놀란 왜구들이 피해 갔다고 한다. 두꺼비 섬(蟾), 나루 진(津) 자를 붙여 섬진강으로 부르게 된 이유다. 섬진강은 '나루터에 두꺼비가 나타난 강'이다.

때 묻지 않고 수줍어하는 누이 같은 강

봄날의 섬진강 풍경을 만나기 위해 전북 임실로 달렸다. 작은 웅담샘에서 시작한 물길은 임실 땅에 인공호수인 옥정호(玉井湖)와 '육지 속의 섬'인 봉어섬(외앗날)을 만들어내며 흘러간다. 섬진강다목적댐으로 생겨난 옥정호의 풍광이 눈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다. 노령산맥의 첩첩한 산줄기를 타고 하산한 구름과 수면으로부터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물안개는 몽환적이다. 국사봉 전망대에 올라서면 발아래로 화려한 지느러미를 펼치고 유유자적 헤엄치는 듯한 봉어섬이 한눈에 들어온다.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에서 용운리 용운마을까지의 물안개길은 수변을 따라 구불구불한 길이 싹뺏처럼 뻗어 있어 사색하기 좋다. 그야말로 때 묻지 않은 오솔길이다. 옥정호 곁을 지나는 749번 지방도는 '한국의 100대 아름다운 길'에 선정된 길로 섬진강의 풍경을 감상하며 드라이브하기 좋다.

섬진강은 옥정호의 끝 지점, 1965년 12월 준공한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다시 흐른다. 파



영화 '아름다운 시절'의 촬영지인 구담마을을 굽이굽이 흐르는 섬진강과 징검다리



스칼이 '판세'에서 "강은 움직이며 흘러가는 길이다.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주는 길"이라고 이야기했듯이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의 근거지였던 회문산을 감고 돌아 임실 진뒀마을에 이른다.

마을 앞에 긴 산이 있어 '진뒀'란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진메' '질메' '장산마을'이라는 이름도 있다. 김용택 시인의 마을로 유명한 진뒀마을 입구에는 제13회 풀꽃상을 받은 아름다리 정자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 마을에서는 김용택 시인의 생가와 사비 '농부와 시인'이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강물을 내려다보며 고즈넉하게 앉아 있는 자그마한 한옥에 붙은 옥호는 '글이 돌아온다'는 회문재(回文齋)다. 그는 '섬진강' 연작을 쓰면서 '섬진강 시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회문재 마루에 앉아 강 쪽을 바라보면 계곡이라기엔 넓고 강이라고 하기엔 폭이 좁은 부드럽고 고운 강물이 흐른다.

'시인의 길'로 불리는 진뒀마을에서 천담마을까지의 5km는 가장 아름다운 섬진강길에 속한다. 강이라기보다 개울에 가까운 물 줄기는 청량한 소리를 내며 주로 암반 위를 미끄러져 내려간다. 섬진강의 물줄기가 속삭이듯 길동무를 하는 이 길은 섬진강 자전거길 중에서도 백미로 꼽힌다. '시인의 길 전망대'에서 휴식을 취하던 장재혁 씨는 "좁은 협곡에 굽이가 많은 풍광이 너무 좋은, 때 묻지 않은 포근한 강"이라며 "섬진강의 자연 그대로를 느끼며 라이딩이 가능한 코스"라고 말한다.

강물은 천담마을을 지나 이광모 감독의 1998년 영화 '아름다운 시절'의 촬영지인 구담마을에 이른다. 섬진강을 따라 구름과 비탈에 가옥이 들어선 구담마을은 마을 앞 섬진강에 자라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 구담(九潭)이라 했고, 아홉 개의 소(沼)가 있다 하여 그렇다는 설도 있다. 뿌리가 드러난 당산나무 언덕 앞에는 김용택 시인의 사비 '강 같은 세월'이 세워져 있다.

「"꽃이 핀다/ 꽃이 집니다/ 꽃 피고 지는 곳/ 강물입니다/ 강같은 내 세월이었지요"」
 당산나무 언덕에서 매화의 아름다움 사이로 내려다보는 섬진강 풍경은 한 폭의 수채화다. 굽이굽이 흐르는 섬진강의 청류도 한눈에 들어와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준다. 당산나무 언덕에서 돌계단을 따라 강가로 내려오면 시심(詩心)을 불러일으키는 징검다리가 놓여 있고, 징검다리를 건너면 순창 내룡마을의 장군목으로 이어진다. 이곳에는 수만 년 동안 산줄기 사이를 굽이치며 흘러온 강물이 빛은 기기묘묘한 바위가 그득하다.



1, 3 오랜 세월 물결이 다듬어낸 기묘한 바위들이 모여 있는 순창의 장군목
2 장군목 험기운데 있는 요강바위
4 한강이나 금강, 낙동강과 달리 사람의 손때가 덜 묻은 섬진강은 사계절 맑은 물이 흐른다.

'장군목' '물항'이라 부르기도 하는 장군목은 풍수지리상 '용결산 장군대좌형'이라는 형세에서 유래한 곳으로, 각각각색의 바위에는 마치 용틀임을 하며 살아 움직이는 듯한 다양한 무늬가 새겨져 있다. 그중 둘레 약 1.6m, 깊이 2m가량의 구멍이 뚫려 있어 그 모습이 마치 요강처럼 생긴 '요강바위'는 최고의 걸작으로 꼽힌다. 1993년 도난당했다가 1년 6개월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요강 바위는 아이를 못 낳은 여인이 움푹 파인 구멍에 들어가 치성을 드리면 아이를 얻는다는 전설이 깃든 신비로운 바위다. 한국전쟁 때는 빨치산 다섯 명이 바위 속에 숨어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 장군목에서 빠져나와 순창 명소인 향가(香佳)유원지로 향한다. 향가는 섬진강의 강물을 향기로 운 물(香水), 옥출산을 아름다운 산(佳山)이라고 하여 각각 앞글자를 따다가 이름을 붙였다. 그 이름에 걸맞게 강물 위에 배를 띄워 놓으면 절로 시가 읊어지는 아름다운 풍광을 지녔다. 2013년 섬진강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지고 자동차캠핑장과 방갈로 등이 들어서면서 섬진강의 명소로 떠올랐다.

일제 강점기 말에 순창, 남원, 담양 지역의 쌀을 수탈하기 위해 남원에서 순창을 넘어가는 옥출산 아래 터널을 뚫고 섬진강을 가로지르는 철도 교각 공사를 진행했는데 해방이 되면서 공사가 중단



5 '섬진강 자전거길' 순창 구간인 향가목교에 설치된 조형물 6 도보나 자전거로만 다니는 향가터널 7 섬진강과 보성강이 합류하는 곡성의 압록, 강 건너 전라선 열차가 지나간다.

됐고, 이미 깔렸던 철길도 철거됐다. 섬진강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서 384m의 향가터널에 LED 조명을 설치하고 조형물 '새들의 향연'이 꾸며졌다. 도보나 자전거로만 다니게 된 터널 안은 살갓에 소름이 돋을 만큼 서늘하다. 교각 위에 상판을 얹은 향가목교 중간 지점에는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놓여 있는데, 발아래로 많은 이야기를 품은 섬진강물이 흐른다.

'섬진강의 무릉도원' 곡성 침실습지

곡성군을 경유하는 섬진강을 '순자강'이라고도 한다. 강은 곡성읍에서 남원의 요천을 받아들여 제법 큰 강이 되는데 합류 지점에 '여울 옆에 서 있는 정자'인 횡탄정(橫灘亭)이 서 있다. 이곳에서 12km 떨어진 관촌면 가정리 청소년야영장까지의 섬진강 자전거길 곡성 구간은 섬진강 물길과 강변 철쭉 길을 따라 달리는 환상적인 코스로 명성이 높다.

'섬진강 무릉도원'으로 불리는 섬진강변의 침실습지는 2016년 우리나라에서 22번째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생태계의 보고다. 강둑에 오르면 침실습지의 전경이 펼쳐지는데,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과 흰꼬리수리, 2급인 삿, 남생이, 새매, 큰말뚝가리, 새호리기 등이 살고 있고, 각시붕어·칼납자루·긴물개·쉬리 등이 서식하고 있다.

탐방로 뚝을 따라 습지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데 습지 중간에 빨간색 '퐁퐁다리'가 놓여 있다. 강물이 불어나면 다리가 잠기는



데 다리의 유실을 막기 위해 다리 중간중간 구멍을 뚫어 '퐁퐁다리'라고 불린다.

은빛으로 반짝이던 섬진강은 압록에서 보성군 일림산 중턱의 선녀샘에서 발원한 보성강을 받아들인다. 전라선 열차가 지나가는 철교와 압록교, 예성교가 강을 가로질러 놓여 있는데 옛날에 압록진이라는 나루터가 있었다. 한여름 피서지로 널리 알려진 압록유원지는 시원한 강줄기 때문인지 여름에 모기가 별로 없고 강변에는 은어회, 참계탕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이 즐비하다.

섬진강과 보성강이 만나 한결 넓어진 강은 구례에 이르러 더욱욱 푸르고 화사한 자태를 뽐낸다. 강가에는 산수유꽃이 노랗게 꽃망울을 피웠고, 강줄기 따라 700여m 이어진 대나무 숲에서 바람이 일렁일 때마다 댓잎 소리가 서걱거린다. 대나무숲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청명한 하늘 빛 닮은 푸른 물줄기가 내내 함께하고, 대나무 사이사이 오산 자락이 보인다. 자라처럼 생긴 오산을 감싸고 흐른 섬진강은 지리산과 백운산 사이를 굽이돌며 흐르면서 반월형 백사장, 목가적인 강촌 풍경, 푸른 대나무숲, 매화꽃 별천지 등 솔한 풍치를 만든다. 봄이면 섬진강과 나란히 달리는 국도 17호선과 19호선을 따라 매화와 벚꽃이 피고 진다.

"오메, 몸과 마음에 꽃물이 들겠네"

구례에서 19번 국도를 따라가면 '섬진강의 동쪽'이란 뜻을 지닌 하동(河東)의 화개장터에 닿는다. 김동리의 소설 '역마'의 무대이기도 한 화개장터는 옛 시절 경상도와 전라도의 물산이 만나 흥정이 이루어진 곳으로 지금은 쌍계사까지 이어지는 환상적인 벚꽃 터널로 사람들의 발길을 끈다. 화개전을 받아들인 섬진강은 넓어질 대로 넓어지고 하얀 모래톱도 드넓게 펼쳐진다. 다사강(多沙江)이라는 이름처럼 예전에는 하얀 백사장만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모래톱에 잡초와 나무들이 눈에 띄기



1 활짝 핀 매화꽃 2 광양 청매실농원의 장독대
3 섬진강 백사장과 아름다운 노송이 어우러진 하동송림
4 하동군 악양의 동정호와 매화, 그리고 안개에 휩싸인 지리산
5 지리산 맑은 물이 흘러 내려와서 섬진강과 만나는 하동 화개장터



시작했다. 지역 주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다압취수장 때문에 유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대하소설 '토지'의 주 무대인 악양 벌판, 봄 햇살이 내려앉은 강변의 평사리 공원을 지나면 조선 영조 때 강바람과 모래바람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든 하동송림(천연기념물 제445호)이 반긴다. 오랜 세월을 버텨온 '맞이나무' '원앙나무' '고운매 나무' '못난이 나무' 등 900여 그루 노송들이 맑은 물결, 고운 빛깔의 모래톱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쉼터를 만들어낸다.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솔향 가득한 산책로를 거닐어보면 노송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싱그럽다.

강 건너편은 전남 광양 땅이다. 구례에서 매화마을로 향하는 섬진강변 주변으로 청매(青梅), 홍매(紅梅), 백매(白梅) 등 꽃구름이 내려앉는다. 꽃 중에 가장 먼저 봄소식을 전한다는 매화는 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강물에 떨어지면 그야말로 절경이다. 백운산 자락의 매화마을 중에서 매실 명인인 홍쌍리 여사가 50년 동안 일군 청매실농원이 가장 아름답다. 매화꽃이 마치 백설이 내린 듯 언덕을 뒤덮고, 매화꽃 너머로 섬진강 푸른 물결이 출렁인다. 3천여 개에 달하는 장독대 위에 매화비가 내리면 누구나 감탄하는 진경산수화다.

정호승 시인은 "섬진강에 꽃 떨어진다/ 인생을 추위 속에 살아도/ 결코 향기는 팔지 않는/ 매화꽃 떨어진다...(중략)...섬진강에 가서/ 지는 매화꽃 보지 않고/ 선불리/ 인생을 사랑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읊었다. 봄기운을 가득 머금은 섬진강은 섬진교와 경전선 철교를 지나 광양 망덕포구에서 바다와 몸을 섞는다.





봄비가 그치고 난 뒤 곡성 섬진강변의 침실습지 풍경. '섬진강의 무릉도원'으로 불리는 침실습지는 2016년 국가습지로 지정된 생태계의 보고다. 일교차가 커지는 9월부터 환상적인 물안개를 연출한다.



청학선원 삼성궁 & 섬진강 도깨비마을

하동의 삼성궁은 '원력(願力) 솟대'라 불리는 돌탑과 지리산과 어우러져 독특한 풍경을 연출한다. 섬진강 도깨비마을은 조선 시대의 마천목 장군과 섬진강 도깨비살의 전설을 테마로 조성한 곡성의 대표 관광지다.



해발 850m의 지리산에 자리해 있는 삼성궁은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소도를 복원한 곳이다.

백두산에서 백두대간을 따라 흘러 섬진강에 와서 큰 봉우리를 이루었다 하여 '두류산'이라 불리는 지리산, 그 깊은 산자락 850m에 고조선의 소도(蘇塗)를 복원한 청학선원 삼성궁(靑鶴仙苑 三聖宮)이 자리를 잡고 있다.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성자인 옛 소도를 복원한 삼성궁의 상징은 무엇보다 우뚝우뚝 솟아 있는 2천여 개의 솟대다. 삼성궁 수행자들이 육체적 수련인 행선(行仙)을 통해 정성껏 쌓아 올린 마고성, 한없이 돌을 올려 기묘한 형상으로 쌓은 솟대, 맷돌을 수십 개 올려 쌓은 솟대, 향아리로 쌓은 솟대 등이 지리산 자락과 어울려 이국적인 풍취를 자아낸다. 1994년부터 일반인들에게 개방한 삼성궁은 행정구역으로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에 속하며, 이 마을 출신인 한풀 선사사가 1983년부터 '원력 솟대'를 쌓고 있다. 이곳은 환인과 환웅, 단군 세 성인을 모시는 배달겨레의 성전이자 선무(仙武) 수도장이다.

고조선 소도 복원한 지리산 삼성궁

삼성궁 매표소 입구의 홍익문(弘益門)을 지나자 계곡의 물소리가 우렁차다. 청학 모양의 건물 앞에 세워진 안내판에는 "한풀선사는 이 땅에 배달민족혼을 일으키고 민족적 구심점을 형성하기 위한 배달민족성전을 건립하고자 초근목피로 연명하면서 칠푼콜과 다래 넝쿨을 걸으며, 몇몇 제자들의 도움으로 모든 솟대를 쌓았다. 이는 고조선 소도를



복원하여 고대 조선문화에의 회귀를 꾀함과 동시에 오늘날의 잃어버린 배달선도(仙道)문화를 재조명하고 민족문화 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적혀 있다.

청학 모양의 건축물이 눈에 거슬리지만 '신성한 땅'이라는 뜻을 지닌 검단길로 들어서면 상상하지 못했던 공간들이 펼쳐진다. 우주의 창조자이자 인류의 시원인 마고 할미의 전설을 본떠 만든 마고성 돌담에는 단군신화의 상징인 삼족오, 우리 민족 고유의 문양인 삼태극, 청룡·백호·주작·현무 등 동서남북을 지키는 상징적인 동물들이 그려져 있다.

검단길 끝 지점의 석문을 지나면 '밝은 땅'이라는 뜻을 지닌 배달길이고, 소도를 본떠 만든 삼성궁이다. 하늘 높아 솟아 있는 솟대 사이로 건국전, 연무정, 무예청, 연청학루 등이 들어서 있다. 이 많은 양의 돌과 맷돌을 어디서 구했고, 어떻게 쌓았는지 놀라지만 하다.

삼성궁의 중심은 환인, 환웅, 단군 세 성인의 초상화와 홍익인간(弘益人間), 이화세계(理化世界)라는 글자가 걸려 있는 건국전이다. 역사서 '한단고기' '단기고사' '규원사화' 등에 따르면 환인은 지금부터 약 9천200년 전 태고시대 중앙아시아 천산을 중심으로 있었던 한국의 7세 환인들 가운데 초대 환인을



말하고, 환웅은 고조선 이전 배달국의 18세 환웅들 가운데 초대 환웅천황을 일컬으며 단군은 고조선의 47세 단군들 가운데 초대 단군왕검을 지칭한다.

이정화 문화관광해설사는 "배달민족의 고유 경전인 '삼일신고'(三一神誥) 정신에 따라 3천333개 솥대를 쌓을 것"이라며 "사계절 아름답지만 돌 솥대 사이로 붉게 물든 단풍나무들이 그 자체를 뽐내고 햇살과 솥대의 그림자가 언뜻머물 때면 무릉도원이 따로 없다"고 말한다.

소도제천이라 불리는 개천 대제 때는 전국의 수행자들이 삼성궁에 모여 각종 의식과 행사를 진행한다.

우스꽝스럽고 친근한 도깨비들

곡성군 두마면 두계리 앞 섬진강 변에는 '마천목 장군과 도깨비 살' 유래비가 세워져 있다. 1370년경 조선 개국공신인 충정공 마천목(1358~1431)장군은 소년 시절에 부모 공양을 위해 섬진강을 막아 고기를 잡으려다가 거센 물살에 좌절하고 기이한 돌 하나를 주웠다. 그날 밤 수많은 도깨비가 몰려와 "주어온 돌이 우리의 대장이니 돌려달라"고 간청했다. 이에 돌을 돌려주었더니 도깨비들이 강물에 나뭇가지를 촘촘히 박아 '어살'을



마고 할미 전설을 본떠 만든 마고성과 2천여 개의 솥대가 이국적인 풍취를 자아낸다.



만들어 주었다. 동화작가이자 작곡가인 김성범 총장은 전설을 테마로 6만 평 규모의 섬진강 도깨비마을을 조성했다.

높이 11m의 도깨비 천왕이 버티고 서 있는 마을 입구에서 1km 남짓한 '도깨비 숲길'을 지나면 도깨비마을이 나온다. 도깨비마을의 산비탈에는 1천여 개의 익살스러운 도깨비 조각상이 있어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도깨비들은 무섭다기보단 어딘지 우스꽝스럽고 친근하다. 2층짜리 도깨비 전사관 앞에서는 어리숙한 도깨비 '닷냥이'가 닷 푸만 달라고 손을 벌리며 멧쩍은 미소를 짓고 있다.

도깨비 전사관 1층에서는 섬진강 도깨비마을 인형극단의 '도깨비 살' 인형극이 공연되고, 2층에는 도깨비 역사와 기원이 정리돼 있다.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국보 제10호), 부여 외리 문양전(보물 제343호), 귀면청동로(국보 제145호), 강진 사문안 석조상(전남 문화재 제187호) 등 도깨비가 새겨진 문화재 재현 작품과 '도깨비의 조상'인 배달국 14대 천왕인 치우천왕 투구를 통해 도깨비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다. 백장암의 삼층석탑 탑신에 희미하게 남은 도깨비는 머리에 두 개의 뿔을 지녔고 흉두꺼를 들고 있다. 도깨비마을의 김영래 씨는 "도깨비 하면 떠오르는 흑부리영감은 일제 강점기 교과서에 실린 일본 설화 '흑부리 영감'이 우리 것으로 둔갑한 이야기"라고 강조한다.

우리 도깨비와 유사한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일본 등의 유물과 함께 마천목 좌명공신녹권(보물 제1469호) 복사본이 전시돼 있다. 녹권은 공신에 책봉된 사람에게 지급된 문서로, 조선 초기의 공신녹권 체제나 양식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숲체험 놀이터에서는 나무에 매달린 밧줄 그네, 밧줄 썰라인을 타며 아이들도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5m 높이의 나무 위에 지어진 오두막인 '둥둥나무집'에서는 어린 시절 '툼 소녀의 모험'이나 '이웃집 토토로'를 보며 꿈꾸던 로망을 잠시나마 실현할 수 있다. 체험학습장에서는 도깨비방망이도 만들어 보고, 도깨비전통문양 떡살도 찍어 볼 수 있다.



섬진강 도깨비마을에서는 도깨비를 주제로 한 전시와 인형극 공연, 숲 공원에서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구례 오산 사성암 세속의 번뇌 다 떨쳐버릴 최적의 장소

구례 오산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붙어 있는 사성암은 심진강 전망이 좋은 명승지다. 유유히 흘러가는 심진강과 구례 들판, 지리산 능선이 한눈에 들어온다.

"오산을 오르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고 두 번 다시 가지 않아도 후회할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산(鰲山·530m)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사성암을 중심으로 풍월대·망풍대·배석대·낙조대·신선대 등 12비경을 뽐내는 명산이다. 조선 후기에 편찬된 구례 지역 읍지에는 "바위의 형상이 빼어나 금강산과 같다"고 기록돼 있고, 자라처럼 생긴 산은 마치 심진강의 물을 마시는 형국이다.

명승 111호로 지정된 사성암(四聖庵)은 오산 꼭대기에 있는 암자로 백제 성왕 22년(544)에 연기조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연기조사가 화엄사를 창건하기 전 머물렀던 곳으로 원래 명칭은 '오산암'이라 불렸으나 이후 의상·원효·도선·진각 등 네 명의 고승들이 수도했다 하여 '사성암'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요즘 공사가 한창인데 사성암의 턱밑까지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죽연마을에서 수시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타면 된다.

사성암 주차장에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거쳐 사성암에 이르면 금강산 보덕암의 모습과 닮은 약사전이 높이 20m의 수직 절벽 위에 매달려 있다. 건물의 3분의 1을 바위에 걸치고, 나머지 3분의 2는 기둥을 짚고 서 있는 모양새가 위태롭다. 바로 밑에서 바라보면 경이감과 함께 아찔한 느낌이 든다.

암벽을 따라 난 나선형 돌계단을 올라 암자 안으로 들어가면 암벽에 간략한 선으로 음각된



원효대사가 손톱으로 새겼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마애여래입상. 사성암에 가면 심진강과 구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1 한가지 소원을 꼭 들어준다는 소원바위
2 사성암에서 내려다본 섬진강

마애여래입상(전남 유형문화재 제220호)이 모셔져 있다. 원효대사가 손톱으로 새겼다는 일화가 전하는 높이 3.9m의 마애여래입상은 오른손을 들어 중지를 접고 왼손은 손가락을 벌려 가슴 앞에 대고 있다. 마애여래입상의 윤곽을 더 뚜렷하게 보이려고 음각된 골마다 금박을 입혔다. 암자 앞 두 평 남짓한 공간에서 서면 유유히 흘러가는 섬진강과 대나무숲, 구레 읍내와 드넓은 평야가 한눈에 들어온다. 임향님 문화관광해설사는 "발꿈치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며 세속의 번뇌를 다 떨쳐버릴 최적의 장소"라고 말한다.

약사전을 나와 마당 왼쪽의 계단을 오르면 수령이 800년에 달하는 귀목나무, 한가지 소원을 꼭 들어준다는 소원바위와 마주친다. 바위에는 뗏목을 끌러 하동으로 내려간 남편을 기다리다 지쳐 세상을 떠난 아내와 아내를 잃은 설움에 숨을 거둔 남편의 전설이 깃들어 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고 난 뒤 오산 정상으로 몇 걸음 옮기면 도선국사가 수행했다는 도선굴이 나타난다. 사람 한 명 겨우 들어갈 바위틈을 비집고 들어가면 한 사람이 좌선할 수 있는 좁은 공간에 촛불이 어둠을 밝히고 있다.

도선굴에서 가파른 계단과 산길을 조금 오르면 오산 정상에 닿는다. 정상 부근의 전망대에 서면 장엄한 지리산 능선과 천하의 명당으로 손꼽히는 운조루, 너른 들판, 섬진강의 서정적인 풍경이 아름답다. ♡



INFORMATION



입실

섬진강댐 물 문화관

◀ 섬진강댐 준공 50주년을 맞아 2015년 개관했다. 전시실, 다목적실, 전망데크 등으로 구성돼 있다. 1층 '섬진강 문화지도' 코너에서는 섬진강 주변의 문화유적지를 터치스크린 모니터로 검색할 수 있다. 2층은 '섬진강댐 이야기'와 '나의 섬진강 문학산책' '시가 솟는 분수' '휴부와 놀부' 등 다양한 공간으로 조성됐다. '데미샘 물결' 코너에서는 손을 넣고 모션을 취하면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섬진강과 관련된 문구들이 나온다.

관람 시간 10:00~17:00

관람 무료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섬진강 어류생태관

➡ 2008년 개관한 섬진강 어류생태관은 '생명의 터전, 섬진강 天·地·水'를 주제로 풍요로운 삶의 공간(제1전시실), 물과 생명의 공간(제2전시실), 땅과 환경의 공간(제3전시실)으로 꾸며져 있다. 임실지역 섬진강에서 서식하는 임실납자루 등 멸종위기종, 국내의 민물고기를 볼 수 있다. 야외에는 비단잉어 먹이 주기 체험장, 섬진강 상류·중류·하류를 축소한 생태연못, 물고기 사냥 연습장 등이 있다.

관람 시간 09:00~18:00

관람료 어른 2천원, 청소년 1천원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구레



[구레 운조루]

조선 영조 때 삼부부사를 지낸 류이주가 금빛의 거북이 진흙에 묻혀 있다는 '금귀물니(金龜沒泥)'의 길지에 세운 99칸의 고택이다. 운조루(雲鳥樓)는 '구름 위를 나는 새가 사는 아름다운 집'이란 뜻으로, 도연명의 '귀거래사'에서 따왔다. 가난한 이웃들이 언제든지 쌀을 퍼갈 수 있게 했던 '타인능해(他人能解)'라는 뒤주, 밥 짓는 연기 때문에 끼니를 거른 이가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배려한 낮은 굴뚝은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하동 최참판댁]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 주인공 서희와 길상의 어린 시절 배경이 되는 최참판댁은 섬진강이 감싸는 하동 평사리의 전형적인 농촌 마을에 있다. 2002년 최참판댁과 민초들의 초가를 재현했다. 최참판댁은 안채를 중심으로 동편에 사랑채, 서편에 별당을 배치했고, 사랑채 대청마루에 올라앉으면 평사리의 드넓은 들판이 내려다보인다. 박경리 작가의 동상이 서 있는 박경리문학관에서 작가의 초상화와 친필 원고, 사진, 각 출판사 발행 '토지' 작품이 전시돼 있다.



[화개장터 십리벚꽃길]

4월로 접어들면 화개장터에서 선(禪)과 다(茶), 법패(법鳴)의 근도도량 쌍계사에 이르는 5km 구간은 벚꽃터널을 이룬다. 벚꽃이 만개하면 구불구불한 화개천을 따라 안개를 뚫어 올리듯 하얀 꽃잎이 날려 장관을 이룬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오른 '십리벚꽃길'은 사랑하는 남녀가 두 손을 꼭 잡고 걸으면 백년해로한다고 하여 '혼례길'로 불린다. 화개장터 벚꽃축제가 4월 7~8일 이틀간 화개장터와 영·호남 화합 다목적광장 일원에서 열린다.